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개원 11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7일 5층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한 고양시 사암연합회 회장 대오스님 등 대·내외 귀빈과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11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30년 장기근속 1명, 20년 장기근속 2명과 10년 장기근속 175명에게 장기근속 상을 수여했다. 또한, 동국약품 공화춘 대표의 십년간 일억 원의 기부약정을 통해 제정된 자랑스러운 ‘동국의학인상’에 신경과 김동억 교수, 서울리거병원 박상근 병원장이 수상했다.

2015년 의학 학술논문과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한 교원에게 수여하는 ‘동국학술연구대상’에는 의학과 임군일, 박철용, 안지현 교수가 수상했다. 이밖에도 병원 발전에 기여한 11명에게는 모범 교직원 표창이 수여됐다.



02 불암사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의료지원

생명나눔실천 활성을 위한 ‘2016 생명나눔 산사음악회’가 남양주 불암사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4일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알리고 생명나눔 실천을 확대시켜 생명의 고귀함을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행사에 앞서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및 환자 치료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조항조, 양하영, 성빈 등이 출연했으며, 동국대 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져 가을 산사에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역주민 및 사찰 등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사와 구급차를 지원했다.



03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부 초음파 검사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시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임신 주수별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급여 적용되며, 태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될 경우 추가 급여가 적용된다. 단, 유전학적 양수검사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되며, 4대 중증질환자 조직검사 등에 필요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해당되며 횡수 제한이 없다. 4대 중증질환 의심환자에게 실시한 경우도 1회에 한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04 안전한 병원 환경 함께 만들어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시설관리팀은 지난 9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정검사를 실시했다.

전문가의 점검으로 실시된 이번 검사기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시설물 정밀점검 ▲소방시설 검사 ▲전기시설 검사 ▲각종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병원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화재안전 기준의 적합 여부, 전기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 실시한 결과 본원은 시설물 안전성 분야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향후에도 환자안전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설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알 리 미

개원 11주년 기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을 등반대회

일시: 10월 8일(토) 13시 | 장소: 파주시 심학산

